

## News

### 사상 첫 '빅스텝' 뛴 韓銀…“경기보다 물가 안정 우선”

파이낸셜투데이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0.5%p 인상하는 빅스텝 결정… 기준금리 기준 1.75% → 2.25%… 한은 사상 최초

현재 물가상승률과 기대 심리 안정시키지 못해 고물가 상황 고착화되면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당분간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표현

###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발빠르게 큰 폭' 인상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예적금 기본금리를 각각 최대 0.9%p, 0.8%p 인상 발표… NH농협은행도 곧 발표할 예정

하나은행, 상품별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식예금 0.25%p~0.8%p, 거치식예금 0.5%p~0.9%p 인상… 우리은행, 정기예금 0.25~0.5%p 인상

### 중소대출 문턱 높이는 금융권…자영업자 대출 절벽 예고

뉴스1

국내 은행권, 올 3분기 소상공인 포함 기업 대상 대출 심사 더 깊어하게 할 예정… 10월 코로나 대출 상환 시작되는데 시장금리까지 빠르게 올라 잠재 부실 우려 때문  
대내외 경기 상황 불확실성 증대, 여신 건전성 관리 필요성…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예상된다고 답해… 향후 보수적으로 접근할 예정

### 은행, '투자자문업' 규제 허들 낮아진다… 종합자산관리자 역할 확대

조선비즈

금감원, 은행의 투자자문업 영업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 신설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정… 부동산에서 확대될 때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차원  
그간 부동산에 한해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금융위는 미래 은행은 고객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언급… 경영으로 자체 확대 방안도 검토 중

### 초유의 빅스텝…생명보험사들도 공시이율 재인상 압박

헤럴드경제

생보사들, 이달 공시이율 조정했으나 한은의 빅스텝으로 공시이율 재인상 가능성 높아져… 삼성생명, 이달 상향된 연금보험의 공시이율도 재조정될 것으로 보여…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공시이율 재조정 고민… ABL 생명 등 일부 상품 공시이율 한번도 인상하지 않은 보험사들도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지나치기는 어려워 보여…

### 손보사 車보험 실적 '표정관리'…가격 인하 압박 고조

데일리안

국내 손보사, 올 1분기 자동차보험에서 거둔 영업이익 총 3,44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3.7%… 작년 연간 기록과 맞먹는 수준  
회사별로는 삼성화재가 1,36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6.4% 늘며 최대… 다만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반짝 효과라는 입장… 물가 타깃 정부 기조로 자동차보험료 타깃 가능성

### 주식시장 한파에 ELS 미상환금 전년보다 26% 증가

MTN

올 상반기 ELB 포함 ELS 미상환 발행잔액 총 67조 1,383억원… 작년 상반기보다 53조 3,287억원 증가한 수치… 최근 주가 20~30% 빠지며 조기상환 조건 달성 어려워져…  
기초자산 유형별로는 해외 및 국내 지수형 ELS가 전체 발행금액의 74.4%, 국내 개별주식이 17.7%로 나타나… 유로스톡스, S&P500이 각각 동기간 대비 -1.4%, -9.7% 감소

### 이지스·KB證, CS 취리히 본사 1.5兆에 인수

서울경제

KB증권, 이지스자산운용과 크레디트스위스의 취리히 본사 건물 인수.. 취리히 CS 빌딩을 기초자산으로 삼으며 투자금을 확보할 계획

그간 스위스가 대부분의 투자자산을 국내에서 처리해 외국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점 고려하면 이례적… 건물 지분 가격으로 약 7,000억원 투입 예정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